소진공, 대한상의와 업무협약 체결그동안 통합 데이터 관리시스템 없어판매현황 소비자트렌드 분석 등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GS1 국제표준 바코드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진공 제공동네 슈퍼마켓 등 지역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중소유통물류센터에 국제 표준 바코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판매현황과 소비자트렌드 분석 등 효율적인 상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중소유통물류센터에 납품하는 상품에 GS1 국제표준 바코드를 적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GS1 국제표준 바코드는 물류를 비롯한 전 산업에 사용되는 ‘상품식별 바코드’다. 상품의 분류코드, 상품명, 브랜드명, 내용물, 단위, 유통국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소진공 박성효 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 대한상의 박일준 상근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중소유통물류센터는 동네 슈퍼마켓을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의 유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립됐다. 그간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어개별 센터별로 소규모로 수·발주를 진행해왔다.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중소유통물류센터 통합물류시스템에 표준 바코드 기반 상품이 도입돼 국내외 공급망 체인에서 동일 상품 여부를 인식·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국단위로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특히 상품정보와 매출정보 결합으로 판매현황, 소비자 트렌드 분석 등 ‘핀셋 분석’도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 및 여러 유통채널 활용 시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기존 도입한 표준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어 신규 판로 개척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양 기관은 6월부터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상품 데이터베이스(DB) 연계 후 본격적인 바코드 검증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단위 온라인 수·발주, 공동구매 등이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